

이해찬 정무특보 오늘 방북

정상회담 특사?

청와대·통일부 부인 불구 정치권 '8·15회담설' 촉각 한나라, 대선 '북풍' 경계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급속히 회자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 전 총리의 방북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와는 무관하며 당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등은 이번 방북을 예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이 전 총리의 방북이 남북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정부 차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정상회담이) 그런 채널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길잡이를 위한 사실상의 '대북특사' 성격으로 여기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전 총리가 노 대통령의 의중을 북측에 무게있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다녀온 경험도 있는데다 금년중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밝혀진 안팎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전 총리의 방북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

비돼왔다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달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당직 개편을 통해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로부터 불과 18일만에 이 전 총리의 방북사실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여론의 한 핵심 소식통은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이미 12월에 결정됐다"면서 "이 전 총리 본인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선정국에서의 '북풍'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국의 분위기가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절대 우위의 대선 관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이 신임하는 특보이고 북측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이 "대통령 특보인 이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가는 이유는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의 말고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며 "8·15 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도 이 전 총리의 방북 기간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등은 정상회담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당의 한 초선의원도 "이 전 총리가 평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북미간과 남북간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방북을 하루 앞둔 이해찬 전 총리가 7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면담한 뒤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차관급 이상·공공기관 CEO 165명 출신지역

전남출신 서울·경남 이어 세번째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4.8%

지난 2월 현재 정부부처와 정부투자 또는 산하 공공기관 CEO 가운데 전남 출신이 24명(14.5%)으로 서울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출신은 7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전체의 57.6%에 이르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4.8%

■정부부처·공공기관 CEO 출신지역

출신·시·도	인원수	점유율(%)
경원	7	4.2
경기	5	3.0
경남	26	15.8
경북	15	9.1
광주	7	4.2
대구	4	2.4
대전	5	3.0
부산	11	6.7
서울	27	16.4
인천	1	0.6
전남	24	14.5
전북	12	7.3
제주	2	1.2
중국·상해	1	0.6
충남	10	6.1
충북	8	4.8
합계	165	100

산, 대구)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전남·북, 광주) 43명, 서울 27명, 충청도(충남·북, 대전)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 및 산하 공공기관장만 놓고 볼때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17명(각 17.3%)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명(14.3%), 경북·부산·충남 각 7명(각 7.1%) 등이었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7명

(40.6%)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고려대 16명, 연세대 12명까지 합칠 경우 전체의 57.6%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 5명, 조선대 3명 등 8명으로 4.8%에 머물렀다.

24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411명의 공직사회 CEO의 평균 연령은 57.5세였다. CEO 전체 중 고시출신자는 106명으로 25.8%를 차지했으며, 이중 행정고시 출신자가 85명(20.7%)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고시는 10명(2.4%), 기술고시 8명(1.9%), 외무고시 3명(0.7%)으로 나타났다. 여성 CEO는 1.9%인 4명. 특히 정부부처 임명직의 경우 장하진 여성부장관과 김선욱 법제처장 2명 뿐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방북작업 정부 도움속 작년 12월부터 추진

노 전총리 "특보 자격 아닌 당 차원서 가는 것"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열린우리당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으며 정부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북이 당내 기구인 동북아평화위원회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북아평화위가 최근 신설된 조직이고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

렵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정 의장과 가까운 우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은 이 전 총리의 방북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방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위라는 기구를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방북 추진작업이 지난해 12월 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종료 직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2단계 회의가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종

료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타개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방북 추진 작업도 대북접촉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부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위치를 상실했지만 이번 방북추진 과정에서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공조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의 방북 자격이 노 대통령의 '대북특사'는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 전 총리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설명한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발언을 자제했지만 방북의 성격에 대해서는 "특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당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이 전 총리 본인이 먼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총리가 정치적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전 총리의 방북추진 작업은 특성상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 이 전 총리의 방북 추진 작업에 관련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실을 인지했던 인사는 정 의장을 비롯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 이 전 총리와 가까운 우리당 중진들도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후문이 다. /연합뉴스

방북 앞둔 노 전총리 DJ 예방 조언 들어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동고동 자택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을 만나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7일부터 3박4일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김 전 대통령의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 전 총리가 방북을 앞두고 인사차 김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두 분이 배석자 없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방북수행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참여정부 들어 총리를

지내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두 사람간에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측은 "방북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을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인사차 방문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 전 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우리당 정세균 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핵심 측근인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방북 문제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리산한약방 특장이전

智異山韓藥房

10625 531-38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새로운 다이어트 완성원료

진담신업 조류종

지리산 한약방 (智異山韓藥房)

www.jir.wo.to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본점인원 - 27명(내려보내 1명)은 후배가 아닌 후배입니다.

지도는 여기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지리산한약방

TEL.062-531-38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